






# 복식문화사

## 6강. 개화기·일제강점기 복식 근대·현대의 복식

교재: 우리 옷 이천년, 류희경 외, 미술문화, 2011

##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복식

명칭	유물 또는 벽화	영상매체	특징
( )			<p>( )</p> <p>-고종 32년 복식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고 단발령을 내림으로써 서양 복식과의 이중 구조를 갖게 되었다.</p> <p>-1900년에는 백관복으로 대례·소례복인 ( )이 양복으로 바뀌어 대례복으로는 영국의 궁중 예복을 모방하였다.</p>
			<p>( )</p> <p>-궁중 예복을 모방하여 ( )대신 입었다. 명칭은 ( )이다.</p> <p>-개화기 이후 소례복인 연미복은 ( ) 때 입었다.</p>

( )			( ) -우리 고유의 복식에는 없었으나 양복이 들어오면서 양복의 ( )를 본떠 만들어 입게 되었다.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			( ) -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( )라고도 하나, 마괘와는 형태도 다르고, 예전부터 있어왔던 대금형의 우리의 옷 가운데 한 가지이다. -대원군의 마괘 착용 이후 유행하였고 조선시대 말부터 ( )라고 불렀다.



(            )

-사방이 두루 막혀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삼국시대의 기본 포가 조선시대까지 계속 입혀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.





-양복에서의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,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을 입게 되어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맨저고리, 바치 차림으로는 다닐 수 없었으며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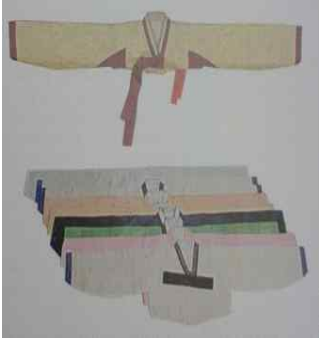

(            )

-주로 여름용 간이복으로 서민들의 옷옷이었다. 우리 옷에 조끼가 도입 되면서 조끼의 장점인 호주머니를 곁들여 편리한 옷이 되자 일반화되었다.
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			<p>( )</p> <p>-남자의 평상복인 바지와 저고리는 별다른 변화 없이 사용되었고, 고의는 적삼과 함께 여름용으로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다.</p> <p>-내의에 속하는 속고의는 '셔츠'와 '팬츠'가 들어오면서 점차 사라졌다.</p>
			<p>( )</p> <p>-겨울에는 방한용으로 털을 대거나 누벼서 사용하였고, 여름에는 저고리 소매 안쪽에 땀이 배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도록 등토시나 말총토시를 사용하였다.</p> <p>-토시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외래품 장갑이 들어오면서 차츰 자취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.</p>
			<p>( )</p> <p>-1920년경부터 우리 신을 본떠 만든 ( )이 나오게 되어 갓신, 진신, 나막신을 대신하게 되었다.</p> <p>-일부 부유층에서는 서양식 단화를 직접 신거나, 또는 이 단화와 우리의 신을 절충한 끈 없는 단화를 신고 멋을 내기도 하였다</p>





명칭	유물 또는 벽화	영상매체	특징
( )			<p>-임금이 승하하자 맨머리로는 국상에 참여할 수 없어 백립과 비슷한 파나마 모자와 맥고 모자를 쓰게 됨으로써 우리 고유의 ( )는 차츰 사라지고 ( ), ( ), ( )등이 나타나 전국적으로 일대 유행을 하게 되었다.</p> <p>-우리 고유의 관모 대신 한복에 모자를 쓴 모습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.</p>
( )			<p>-우리 나라에서 양복을 가장 먼저 착용한 사람들은 외국사절단, 외교관 등의 수행원으로 외국에 나가 그들의 문물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개화 인사들이다.</p> <p>-이때 개화 인사들이 착용한 양복은 1870년대부터 서양 남자들이 평상복으로 입던 색 코트였다.</p> <p>-남성들의 양복을 착용한 것은 ( )에서 비롯되었다.</p> <p>-1940년 전후에는 ( )과 ( )을 절충하여 바지 저고리 위에 오버 코트나 망토를 입었으며 지방에서는 양복지로 만든 ( )에 흰 동정 대신 비로드나 털을 달아 입기도 하였다.</p>
			<p>1910년대: 머리의 변화가 먼저 왔으며 깎은 머리에 학생 모자를 쓰고 ( )나 ( )를 입었고, 겨울에는 주로 ( )를 입었다. 고름 대신 ( )를 달았으며, 학교의 표식으로 ( )를 달기도 하였다.</p> <p>1915년대: 학생복에도 ( )이 생겼으며 바지·저고리 위에 겨울에는 오버 코트를 입는 학생과 망토를 입은 학생이 있었다.</p> <p>1920년대: 많은 학교에서 ( )을 입게 되었다.</p> <p>1940년대: 전투 태세를 갖춘 옷차림으로 교련 훈련을 받기도 하였으며, 교사들은 국방색 모자와 국방색 양복에 각반을 친 전투복 차림을 했다.</p>

			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( )			-왕비의 적의를 비롯하여 ( ), ( ), ( )와 이에 따른 스란·대란 치마 그리고 예복용 속옷으로 입혀졌던 무지기·대숨 치마가 있는데 이들은 개화기에도 그대로 존속하였다.
( )			-평상복은 ( ), ( ), ( ), ( )을 기본으로 하고, 여기에 속적삼, 단속곳, 바지, 속속곳, 다리속곳, 너른바지 등의 속옷을 한동안 그대로 입었다. -저고리 위에는 배자, 갓저고리를 방한용 또는 장식으로 덧입었고, 마고자와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였다.
( )			-개화기 초에는 전도부인들에 의해 저고리 길이가 차츰 길어졌으나, 일반 부녀자


			<p>들은 오히려 짧아졌다.</p> <p>-저고리 길이는 20cm 안팎이었고 겨드랑이 밑도 1cm 정도로 매우 짧고 꼭끼는 형으로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다.</p> <p>-1930년대 전후: 저고리 길이가 다시 길어져 겨드랑이 밑이 ( )cm까지 내려갔고, 진동이나 소매 수구도 더욱 넉넉해졌으며, 특히 배래선이 뚜렷한 곡선을 이루었다. 또한 고름도 넓고 길어졌으며 동정도 넓어졌다.</p> <p>-1940년대: ( )가 배꼽을 덮을 만큼 되었다.</p> <p>-1950년대 전후: 차츰 또 짧아져 가슴 높이까지 올라갔으며 ( )은 길게 달거나 ( )를 달기도 했다.</p>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( )			<p>-1920년초: 이화 학생들의 치마는 발을 덮을 정도. 차츰 저고리가 길어지면서 치마는 무릎까지 올라갔다.</p> <p>-1930년대: 세루가 한창 유행하여 ( )와 ( )를 동색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 유행했다.</p> <p>-1935년대: 저고리 길이가 다소 길어지면서 치마 길이도 많이 길어졌다.</p> <p>-일제 말기: 학생이나 일반 부녀자 모두 치마 대신 ( )를 입었다.</p>
( )			<p>-복잡하고도 불편한 전통 속옷 대신 ( ), ( ) 등 간편한 내의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.</p> <p>-속적삼은 여자용 ( )로 대체</p> <p>-속속곳, 다리속곳은 ( )로 대체</p> <p>-팬티 위아래 단속곳, 바지를 입게 되었다.</p> <p>-특히 짧은 치마를 입던 신여성들은 바지, 단속곳 대신 ( )라는 무명으로 만든 짧은 팬티를 입었고, 어깨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입게 되었다.</p>
			( ), ( ), ( )




			<p>-배자나 갖저고리는 추운 북쪽 지방에서 많이 착용되어 오던 것이 개화기에는 장식적인 용도로 입혀졌다.</p> <p>-여자용은 남자용 마고자를 모방해서 만들어 입기 시작하여 사치용으로 흔히 입었다.</p>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			<p>-겨울에는 검정색 두루마기를 보편적으로 입었다. 양복의 외투가 등장하자 치마저고리 위에 이 외투를 걸침으로써 두루마기는 차츰 퇴색해 가는 경향이 생겼다.</p>
( )			<p>-개화기 초: 신발의 별 변화가 없다가 길이가 짧아진 양장과 통치마의 영향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( )과 구두가 사용되었다.</p> <p>-1920년대: 양화를 생산, 이때 등장한 ( )은 우리 신발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.</p> <p>-1930년대 말: 칠피 구두와 샌들이 유행</p> <p>-일제 말: 물자의 부족으로 ( )와 ( )을 재생하여 사용</p> <p>-이화학당에서는 교복에 어울리는 목구두나 단화류의 구두를 신기도 했다.</p>




			
			<p>머리 모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1910~1920: 결발, 즉 처녀들의 땡기머리, 기호 지방 부녀자의 (            ), 서북 지방 부녀자의 틀어엮은머리가 대표적이었다.</li> <li>-1920~1930: 트레머리(옆가르마를 타서 빗을 머리를 머리 위에다 널찍하게 틀어 붙이는 형식)</li> <li>-1926년: 머리를 짧아 내리는 첩지머리라는 것이 유행</li> <li>-1930년 이후로는 머리를 트는 사람이 많아졌다.</li> <li>-1934년 이화 학당에 단발 바람이 불어 5~6년 동안 계속되었다.</li> <li>-1937년에는 퍼머 머리가 등장하여 모두 긴 머리를 잘라 퍼머를 해서 곱슬머리를 만들었다.</li> </ul>
(            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내외용 관모들이 사라지고 (            )이 등장</li> <li>-(            )를 벗어버리기는 했으나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이 부끄러워 검정 우산을 사용</li> <li>-목도리 즉 '솔'도 등장해 신여성들간에 방한용을 겸한 장식품의 하나로 유행</li> </ul>


			
( )			<p>-양어깨가 올라간 큰 소매에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밑으로 퍼진 스커트인 깃스넬 스타일로, 목레 리본을 달아 여성적으로 보였다.</p>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			<p>-1900년대: 자유로운 한복 차림으로 저고리는 길이가 짧고, 치마는 발목까지 오는 긴 풀치마에 띠허리를 달아 입었다.  -1907년: 숙명학교 학생만이 자주색 원피스를 입어 선구적인 양장 차림을 하였다.</p>

			<p>-1910년: 한복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를 다시 입게 되었다.</p> <p>-1930년대: 점차적으로 양장 교복을 입었으며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주름 치마를 입었다. 겨울에는 남색 또는 자주색 세일러복을 입었고 스웨터를 짜 입기도 했다.</p> <p>-1940년대: 양장 교복을 입게 권하였다.</p> <p>-제2차 세계대전이 심해지자 여학생도 전투복 차림으로 슬랙스나 ( )를 권장하여 여름에는 ( )에 ( ), 겨울철에는 ( )과 ( )를 입게 되었다.</p>
--	---	--	--

## 1940년대 복식






명칭	사진	영상매체	특징
( )			<p>-( )는 1940년대 일제 말기 근로 보국대에 끌려간 우리나라 여성들이 작업복 바지인 ( ) 위에 노동이나 작업시 편리한 ( )나 실용적인 ( )를 함께 착용하면서 시작된 우리 나라 여성들의 최초의 ( )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전형적인 의상</p>

<p>국방색의 ( ) 룩</p>			<p>-세계 2차대전의 영향과 해방 후 돌아오는 교포들의 영향으로 어깨에 ( ) 이나 ( )를 높게 넣은 군복풍의 수트 -( )에서 응용한 국방색 의상들이 유행 -색깔은 짙은 카키색 일색이어서 ( )이라고 부름</p>
<p>( )</p>			<p>-양복의 한 형태 -국민복에 ( )를 부착한 재킷의 상의와 목을 학생 복 같이 꿰뚫어 잠그는 형태 -앞자락을 ( )로 이어서 고쳐입고, 바지 밑단은 ( )으로 칭칭 동여매어 입음 -양복의 필수품인 ( )를 잊어버린지 오래</p>
<p>( )의 옷</p>			<p>-( )의 민족인 한국사람에게는 폭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방송을 시초로 ( ) 옷 입기가 유행으로 퍼짐 -일본인들까지 ( )바지, 저고리를 준비해 공습이 울리면 한복으로 갈아입는 사람들까지 생김</p>
<p>( )의 마카오시대</p>			<p>-미제 해군 ( )와 ( )가 점잖은 차림으로 등장 -미국 스타일의 ( )이 세계적인 유행모드 -( )은 어깨가 넓고 ( )이 가슴을 딱 메울만큼 커다란 넓이의</p>

			<p>( )에 바지는 ( ) 형태</p> <p>-전체적으로 ( )와 넓적다리 부분은 헐렁하고, ( )는 점차 좁아지다가 아래에 ( )을 하여 입는 스타일</p>
( )의 유행			<p>-여자 ( )까지 ( )으로 물들여 입을 정도의 유행</p> <p>-마카오에서 얇고 부드러운 모직 외투감인 ( )이 많이 들어옴</p> <p>-( )은 여자바지 뿐만 아니라 ( ) 옷감으로도 인기를 끌게 됨</p>

### 1950년대 복식




구분	사진	영상매체	특징
( ) 블라우스와 뉴룩			<p>-1951년 전쟁의 부산물인 반투명 ( )으로 만들어 입음</p> <p>-속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음</p> <p>-( )는 주름을 잡아서 만든 모양이 ( )처럼 보인다고 하여 속칭 ( )칼라가 유행</p> <p>-이 블라우스는 타이트한 ( )에 굵이 높은 ( ), ( )이 있는 살색 스타킹과 매치하여 입음</p>

			
( ) 스커트 와 ( ) 스커트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여성들의 멋내기가 되살아나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( )를 꼭 맞게 하고 ( )는 망사로 부풀린 플레어 스커트가 유행</li> <li>-유행이 점차 확산 되면서 스커트의 크기와 부피가 점점 커짐</li> <li>-이 스커트 이외 아코디언 플리츠 플레어 스커트, 피트 앤 플레어의 플레어 스커트, ( )을 높게 세운 하이넥 칼라, 살짝 세운 ( )칼라가 인기</li> </ul>
( )달린 개버딘 플레어 코트  ( )치마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( )의 영향으로 ( )가 달리고 넉넉하게 플레어가 들어간 ( )코트가 유행</li> <li>-코트 뒷면은 ( )주름이 겹치듯 물결이 출렁이듯 플레어를 휘날리고 다니는 것이 유행</li> <li>-더 많은 플레어를 내기 위하여 코트 뒷면 ( )부분에 ( )로 절개선을 만들고 그 밑으로 플레어를 내도록 한 뒷 요크 스타일도 성행</li> <li>-벨벳 옷은 일제 교토 벨벳이나 속칭 ( )옷감으로 만든 짧은 한복 치마는 최고의 멋쟁이 옷으로 인식</li> <li>-벨벳 옷감 사용 한도를 1인당 1벌에 3마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</li> </ul>

			‘( )’이 내려지기 까지 함
( ) 드레스			- ( )소재로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스타일로 제작 - ( )beads 을 이용하여 ( )모양으로 자수를 놓고 매듭단추를 장식하는 디테일이 드레스, 재킷, 코트 등 각종 옷에 부착 되기도 하였음
( )  ( )sac 드레스와 ( ) 스커트			-혼자서는 입고 벗기도 어려울 정도의 ( )하게 달라붙는 맘보 바지 유행 -바지 ( )을 최대한 좁게 하여 몸에 꼭 끼는 타이트한 맘보자리를 (발목)에서 ( )정도 올라가게 짧게 입음 -남자 : 맘보즈봉  -1958년 무렵 자루 형태의 ( ) 드레스 유행 입은 모양이 풍성하여 ( )으로 착각되는 경우도 있었음 -( )나 스웨터 위에 쉽게 코디하여 입을 수 있는 점퍼 스녀트



## 1960년대 복식

구분	사진	영상매체	특징
( ) 스커트 와 ( )팬츠			-미니 스커트는 절정을 이루어 68년도 무릎 위 ( )까지 올라감 -미니보다 더 짧은 길이의 ( )미니스커트 까지 등장 -미니의 유행 중에는 소매가 없거나 등이나 앞 네크를 깊이 판 대담한 옷들이 거리를 메우기도 했음 -( )이라고 하는 옷과 바디 페인팅 등도 나타남
양단 ( ) 코트			-여성들의 양장에는 물론 한복에도 양단으로 된 ( ) 노트를 많이 착용 -한자나 ( )완자 무늬가 있는 양단으로 앞면과 뒷면을 다른 양단으로 하여 두가지로 입을 수 있도록 함 -( )는 작고, ( )은 넓고 길이는 7부로 만들어 졌으며, ( )은 제천으로 만든 사개 단추나 ( )단추로 여미게 하였다.
-1960년대는 단조로운 스타일을 커버하기 위한 액세서리 과용으로 액세서리의 ( )를 이루기도 함 -다양한 프린트와 슬리브리스 드레스, 활동하기에 편한 플레어가 있는 넓지도 좁지도 않는 적당 치마폭과 중간 길이 정도의 ( )도 유행 -1960년대 중반까지 스커트는 ( )라인이 지배적, 소매 길이는 7~8부 정도의 길이가 주를 이룸 -색상은 초반에는 ( )계열 -> 후반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			